

#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 25면에서 계속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똑바로 이익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잘살고 잘 먹고 그러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도 못났든 잘났든 쓰다듬고 바르고 여름이면 덥다고 시원한 거 입혀 주고, 겨울이면 춥다고 더운 거 입혀 주고 이러는 것도 아니, 죽을 때는 쫓아가지도 않는데 하물며 뭘를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뭐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다, 불교도 그냥 타의에서, 바깥에서 찾는 미신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생각을 미신으로 하고 행을 한다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들 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니, 세 살 먹은 애도 그거 다 알 텐데 당신이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세 살 먹은 애도 다 알지만 여든 살 아흔 살 먹어도, 백 살 먹어도 행을 못해요. 말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말을 안 해서도 아니 되고 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은 올바른 말만 해서 한테 떨어뜨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아셨죠?

### 입은 앓다 하는데 괴로움이 있어오

☞ 사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희 들한테 입이 붙을 자리가 없다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생 업이란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에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주근깨가 아주 바짝 끼어 가지고 왔어요. 사는 것도 가난한데 찌죽에 병이 나 가지고, 심장에도 병이 나고, 병이 안 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또 꾸박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못쓰게 됐습니다. 엉금엉금 그냥 기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 마음에서 너무 가엾은 생각이 들어 갔습니다. ‘저것도 내가 모를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바로 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나니까 내가 보기가 괴롭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 무조건 네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가 그냥, 아마 진짜 간절히 거기가 팔렸던 모양입니다.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하더니 병이 차차 나아 가면서 얼굴의 주근깨가 다 없어지면서 세련돼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남편이 일이 영 안되더니 아, 취직을 못해서 뭐, 6년을 놀았더니 7년을 놀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회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회사원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도 세련된 거 신고 얼굴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아, 믿음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고 오니까 시집에서 내쫓기지도 않고요. 얼마나 좋은

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서천국으로 가네.”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신이 양 무제한에 와서 “난 달마 대사 봤습니다.” 하니가 달마 대사는 죽어서 벌써 문혔는데 달마 대사를 봤다니 그 희한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 무제한에 갈라져서 가서 산소를 파 보니까 진실한 한 짝만 거기 들어 있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약사발을 안겨서 죽었는데도 양 무제한을 달마 대사는 사랑해서 바로 그 도리를 일러 줬던 겁니다. 그 뒤에 바로 양 무제한은 달마 대사한테 한 자기의 행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후회를 하면서 그냥 간절히 회개를 했답니다.

그와 같이 모두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나보다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모두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살면, 전자에 자기가 말하고 행하고 한 것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회다 겹다, 모른다 안다 뭐 이런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잘하든지 지켜보고 지켜주고, 그 공지에 공지를 묻고 밤새도록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럴 때는 ‘에이구,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그냥 딱 맡겨 놓곤 ‘잠 좀 재워, 네가 있다면 잠 좀 재워.’ 이라고선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있는데, 뭐, 잠 좀 재워.’ 이라고선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시간을 잤다 하면 3시간만 잤다는 생각에, 내가 잠을 못 잤다는 생각이 벌써 피로가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3시간을 잤든 10시간을 잤든 그런 건 하등 상관이 없이 거

있는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들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자코 한참 있다가 “내가 지금 또 어디 있는고?” 하니가 깜깜한 겁니다. 문을 탁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죠. 그러니까 “오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한 대 얻어걸리고선 그냥 도주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름조차도 공했으니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모두 떠달려서 잠 못 자고 병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어떤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거를 낭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모두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나오는 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서 모든 게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나 할 거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또 속아서 그냥 서로 으르렁 으르렁하고 결핵결핵하게 사시지 말고요, 우리 다복하게 한 생을 즐겁게 삽시다.

### 참자기에 대한 맛을 보고 싶은데..

☞ 나름대로 근본자리에 자리에 놓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참자기에 대한 맛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놓고 가야 될까요?

☞ 여러분 마음이 여러번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서 오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 오관을 통해서 다시 거기다가 놓는다면, 맡기고 놓는다면, 자기도 자기라고 부를 게 없이 항상 놓고 산다면,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것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공에서 나오니까 공에다가 딱! 놓고 믿으면, ‘아! 거기서 다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는다면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몰락 그냥. 그리고 의정이 나면 추구하고 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홀연히 자기가 자기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 주체를 무시한다고요. 그러곤 고상을 걸어 놓고 부처님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만날 거기서 잘되게 해달라는 거죠. 뭘 잘되게 해 줘니까, 네? 자기 마음에 달린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상대가 있는 거니까, 나부터 알고 상대를 알아야죠. 안 그럴까요?

☞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죠? 너부터 알라고 그래 가지고. 달마 대사도 양 무제한에 “공덕이 얼마가 됩니까?” 하니가 “공덕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말입니다. 달마 대사한테 나중에 결국은 약사발을 안기게 해 가지고, 죽어서 묻고 났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다녀오다가 보니까 아, 달마 대사가 저 주장자였다, 주자였다가 진실 하나를 터억 걸어 가지고 메고 달렁달렁 오거든요. “어디를 갔다 오냐?”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고 옵니다.” 하고 달마 대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

###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 회사가 부도 나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들면서 이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야 다음 날 살 길을 찾아볼 텐데 참 걱정입니다. 스님.

☞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피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피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어렵하면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옮겨지고 어떤 때는 아주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하나.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모든 게 죽고 죽고 쫓고 쫓기고 이러지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다.’ 하고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10시간 간 거와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건 피로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간 잤다 하는 건 자기 소견이지 아! 제놈들이 자건 말건 내가 왜 그걸 상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잔다 그래서 맥박이 안 뛰는 법은 없거든요. 땀니다. 그러니까 땀 뺀 더 잤든 제놈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왜 그런 걸 걱정을 합니까? 예? 인생이 요렇게 몸뚱이를 가지고는 얼마나 겁니까만 내 이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해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국사로 유명하다는 스님이 아주 재세를 부리고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길 왕립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더니, 그 국사한테.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서 왜 그렇게 풀밭에서 애를 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내가 어디

## 비누독을 완화시키는 삼베세안타울



■ 삼베세안타울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세안타울 세안법  
① 삼베세안타울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울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됩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부착출력제품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월  
· 재 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S) / 30cmx50cm(L)

##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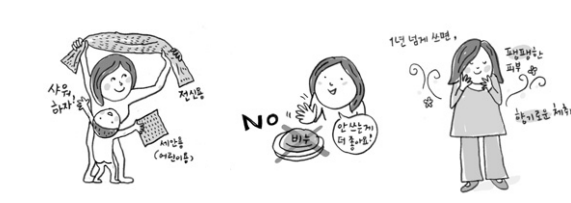


■ 삼베샤워타울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압을 중심으로 등골에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외상은 버려주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깨끗이 됩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루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으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한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현불샵특별 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세안타울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울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